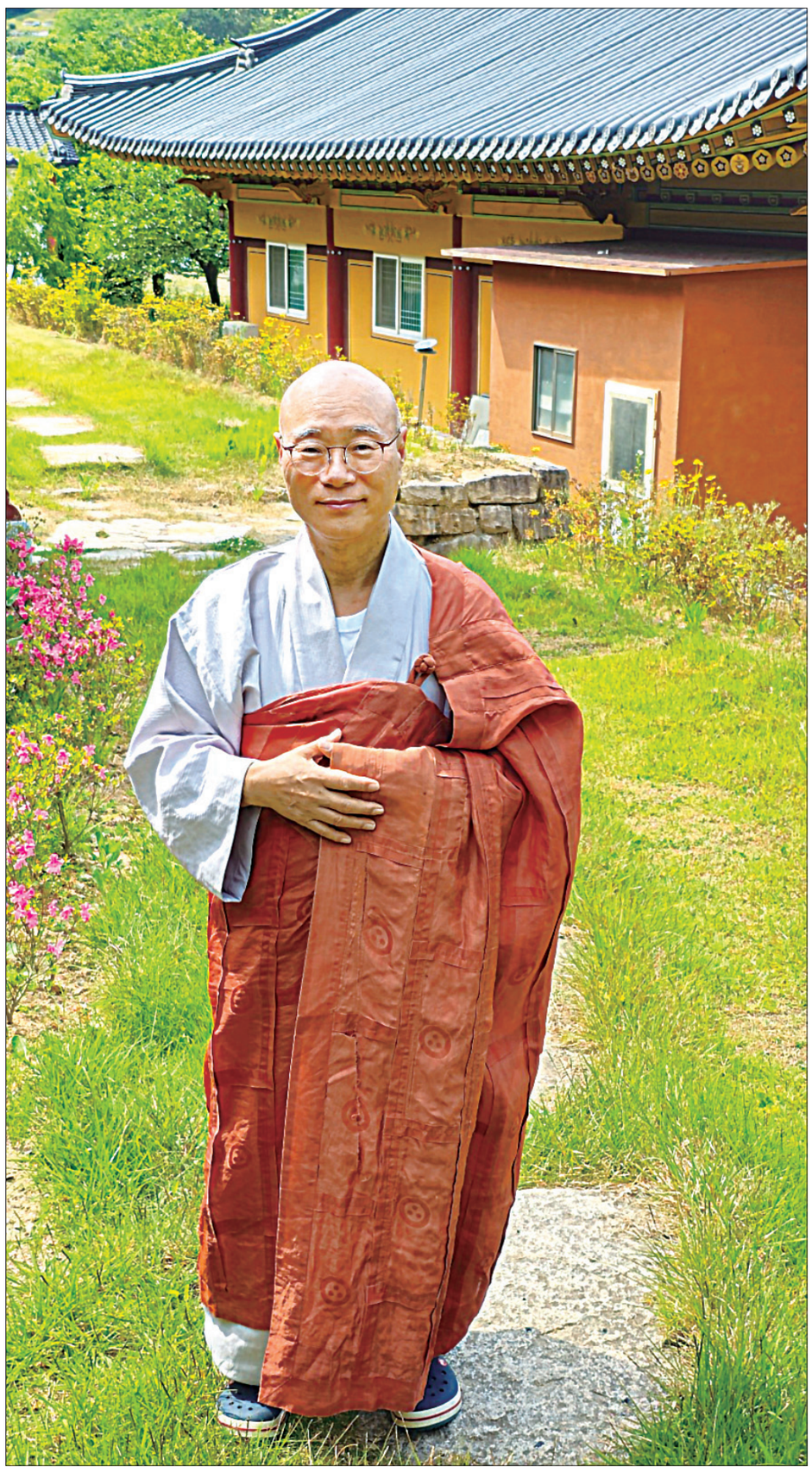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성주 자비선사 주지 원허 지운 스님

“선명상, 생사고락 벗어난 대자유 얻는 길”



원허 지운 스님은… 대강백 운성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었으며, 성우 스님의 계맥을 이었다. 조계총림 송광사 강주와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를 비롯해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기본선원 교선사를 역임했다. 현재, 성주 자비선사 주지와 자비선명상수행센터 수행 지도법사, 승만경연구회 자문위원, (사)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유월의 신록은 어루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연초록빛이다. 자비선사의 우뚝 솟은 일주문은 무심한 듯이 객을 맞이한다. 푸른빛의 대나무는 성긴 바람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무상을 노래하는 듯하다.

명상 수행을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원허 지운 스님의 인터뷰는 성주 자비선사에서 진행됐다. 나붓이 인사를 드리자 스님께서는 먼저 찻잔을 내밀었다.

“올해 직접 만든 햇차인데 몇 잔 마시면 땀도 나는 녹차입니다. 보이차를 마시면 땀이 나잖아요. 이 차는 녹차인데 땀이 나요. 올해 제다법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보았어요.” 자비선사 주변에 차나무를 심어서 직접 차를 만든다는 스님은 해마다 차맛이 다르다면서 활짝 웃었다.

지운 스님은 강백 운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율사 성우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았다. BTN불교TV 및 BBS불교방송에서 〈법화경〉 〈해심밀경〉 〈한글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 경전 강의를 비롯하여 자비다선, 자비수관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쭈었더니 금요일과 주말은 템플스테이로 하루 종일 일과표가 빡빡하게 짜여 있단다. 자비선사는 자비선 명상 관련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운 스님이 지도하는 명상 수행에는 자비수관(좌선명상), 자비경선(걷기명상), 자비다선(차명상) 등 모두 ‘선(禪)’에 바탕하고 있다.

“선의 목적이 생사해탈입니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대자유, 이게 목적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 선의 목적이 열반입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이 진공묘유, 선에서 말하는 본래면목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면 신비 체험, 힐링, 치유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명상에서 힐링은 기본입니다. 설사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생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으로 수행을 하다보면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자비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본래 하나라는 뜻이다. 자(慈)는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어서 나와 남을 함께 기쁘게 한다는 것이며, 비(悲)란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비선’은 자비와 지혜를 계발하는 명상이다.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본성은 병과 죽음이 없음을 알게 하고,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줄이고 욕망의 불을 끄는 방법을 알게 하여 본래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자비심에도 단계가 있는데 법(다르마)을 체험하기 전의 자비는 자신이나 남의 괴로움을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상대가 사람이면 사람을 자비로 보고, 또 동물이면 동물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이 자비는 생명체가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다음은 ‘법연자비’로 법을 통해 보리심을 일깨우는 자비심이다. 법의 눈으로 보면 삶은 연기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본다. 모든 존재 자체가 똑같이 무상한 존재라는 것, 생기면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화내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 불필요함을 알게 된다.

‘명상=힐링’은 본래 목적이 아냐
선명상 목적은 생사해탈에 있어
깨달음 자신감 얻으려면 정진을

자비수관 등 다양한 수행법 창안
‘자비손’ 방편으로 몸, 마음 집중
“존재 그대로의 진실 보라” 강조

그 다음은 무연자비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모든 존재는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된다. 법의 실상을 체험하고 난 뒤의 자비는 자아 그 자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 지운 스님은 “〈범망경〉에도 사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다”면서 “유정무정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한한 자비를 일으키는데, 그 바탕이 바로 모든 존재의 본질은 실체가 없이 비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비어 있다 것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자비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바른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때 보리심의 내용은 내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이지요. 보리심은 말 그대로 깨달은 마음인데 여기에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철 늦은 꽃을 피운 철쭉도 자비심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지운 스님은 송광사와 동화사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강주로서 보낸 세월이 15년이 넘는다. 적지 않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 물었더니 “당시 교수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저의 강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공부는 묻고 답하는 가운데 실력이 향상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산통을 만들어서 뽑기를 하여 당첨되는 스님은 저의 질문에 답하게 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산통을 흔들어서 여러 스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요. 학인스님들은 언제 자기한테 질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거의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학인스님들이 3개월 정도까지는 대답을 잘 못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알기만 하고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지요. 제가 송광사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송광사에서 강주로 있을 당시 80권〈화엄경〉을 하루에 1권씩 공부하여 80일 만에 마쳤다고 한다. 이렇게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업 때마다 거의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효과는 대단했다. 실제, 시간이 흘러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찾아와서 “어디 가서 토론할 때 얼굴 붉히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으며,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다. 지운 스님의 교수법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비선사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커다란 연못이 있어 걷기선 명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운 스님은 “자비경선에서는 연못, 나무, 바람, 햇빛, 새소리, 물소리, 허공 등 일체의 자연이 경선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

스님에 따르면 걷기선 명상은 마음공간 넓히기 수행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즐거우면 함께 기뻐하려는 마음,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 이렇게 자비희사의 마음을 동서남북 팔방 상하 온 우주로 무한 확장하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도 마음의식의 공간을 넓혀야 한단다.

1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